



석우 스님의
조주록 선해

가짜는 없다. 스스로 모를 뿐

학승이 물었다.
“여러 장님이 코끼리의 몸을 만지고 각각 서로 다른 면을 말한다 고 합니다. 진정한 코끼리란 어떤 것입니까?”
조주 스님이 말했다.
“가짜는 없어. 스스로 모르고 있는 거야.”

“제 1구만 무엇입니까?”
스님이 기침을 했다.
학승이 말했다.
“그것이군요.”
조주 스님이 말했다.
“나는 기침도 못하겠군.”

학승이 물었다.
“어찌하여 모르는 것입니까?”
조주 스님이 말했다.
“대해는 마침내 나는 많은 강을 받아들이고 있다” 라고 말하지 않잖아.”

問 大海還納衆流也無 師云 大海道不知 云 因 什?不知 師云 終不道我納衆流

사람들은 자기가 알면 남도 알 것이라고 생각하고 자기가 모르면 남도 모를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것 큰 오산이다. 대해가 어찌 많은 강물을 수용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겠는가? 그렇다면 대해 자신이 모르고 있다고 해서 많은 강물을 수용하는 것이 아닌 것인가? 이것 인식론의 범주이고 철학의 한 장르가 될 만하다고 생각하겠지만, 이 또한 자기의 인식이 절대 진리라는 함정에서 벗어나지 못한 것일 뿐이다.

조주 선사는 한 마디로 ‘대해는 모른다’고 잘라 말했다. 대해가 모른다면 수용하는 것이 아니라는 말이다. 수용한다는 것은 사람에게만 있는 의미이다. 대해는 수용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지 않다. 대해는 그냥 물과 물이 섞여있을 뿐이다. 많다 적다는 의미도 없다. 지구가 대해서도 넘쳐나도, 지구에 물이 고갈되어도, 대해는 근심 없이 고요할 뿐이다.

만물은 그 자체가 우주이고 우주의 근원이다. 우주의 근원은 무엇이 되던, 무엇을 하든 무심한 채 고요하다. 사람의 본심(本心)도 원래 고요하다.

무불선원 선원장

問 衆首摸象各說異端 如何是真象 師云 無假 自是不知

問 如何是第一句 師 咳嗽 云 莫便是否 師云 老僧咳嗽也不得

준마는 책의 그림자만 보아도 달리고, 가설은 석가모니불이 연꽃을 들자 바로 미소로 답했다. 또한 옛날 어떤 신하는 왕이 ‘선다바’ 를 외치면 소금, 그릇, 물, 말 이 네 가지 중에서 왕이 필요한 것을 즉시 알고 갖다 바쳤다 한다.

도의 세계에서는 무언가 알아도 절대 ‘알았다’ 는 생각을 일으키면 안 된다. 알았다는 상(象)이 세워지면 그것은 절대 도가 아니기 때문이다. 조주 스님이 다만 기침을 한 것에 대해서 어떤 말을 알아나 단정이 들어가면 그것은 조주의 일구를 모른 것이다.

전체를 보지 못하면 장님처럼 다르게 말할 것이다. 그런데 그들의 말은 각각 다르지만 사실 다 맞는 말이다. 다만 장님은 코끼리의 참된 모습을 모르고 있을 뿐이다. 선사들도 도에 대하여 이러쿵저러쿵 다르게 말한다. 도대체 무엇이 진실인가? 어떤 것이 거짓인가?

그런데 제1구를 묻는데, 조주 스님은 왜 기침을 하고 말았을까? 그 이유를 알면 전체를 관통하게 된다. 하늘의 과일인 천과(天果)를 의상 스님이 먹어보았다고 하지만 그 맛에 대한 설명은 없다. 먹어보아야 천과의 실체를 안다. 조주 스님의 기침에 대해서 본 남자가 평한다면, “조주의 기침에는 맹목이 있어서 듣는 자는 다 죽고 만다”라고 말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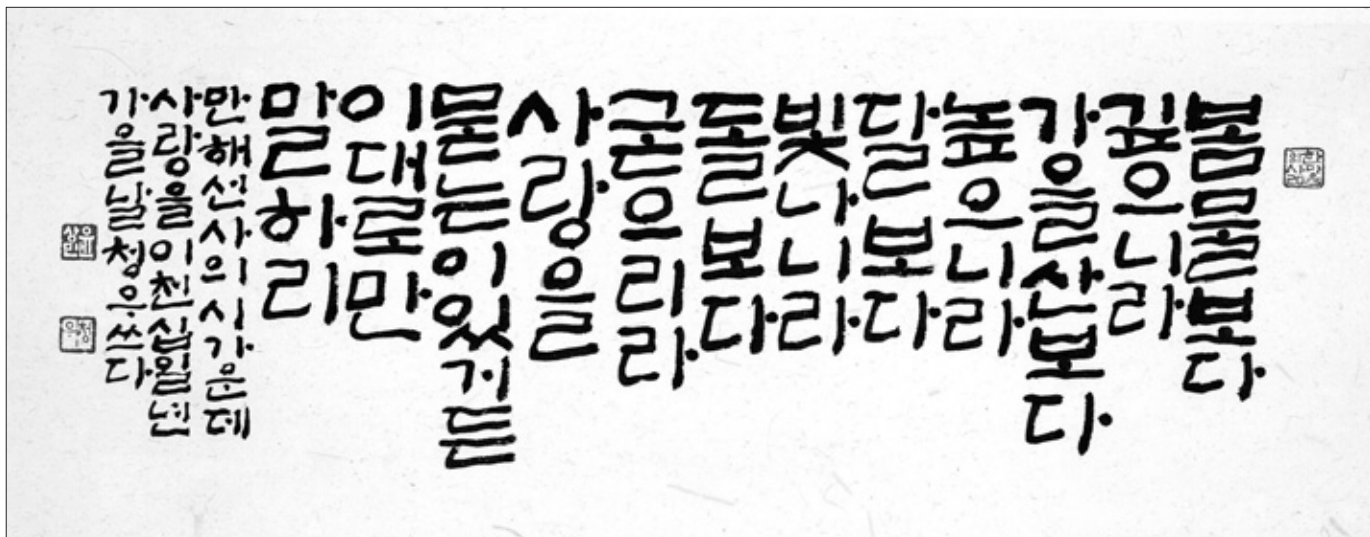
거짓은 없다. 선사들의 가리키는 방법은 여러 가지지만 결국 다 한 곳을 가리키고 있다. 따라서 각기 다르게 지시(指示)한 것일 지라도 알고 보면 다 통하는 말이다. 선사의 지시뿐만 아니라, 세상에 나타나 있는 어떤 의미의 조각들도 모두 진실을 알려주는 하나의 힌트이다. 다만 사람들이 그것을 모르고 있을 뿐이다.

그런데 제1구를 묻는데, 조주 스님은 왜 기침을 하고 말았을까? 그 이유를 알면 전체를 관통하게 된다. 하늘의 과일인 천과(天果)를 의상 스님이 먹어보았다고 하지만 그 맛에 대한 설명은 없다. 먹어보아야 천과의 실체를 안다. 조주 스님의 기침에 대해서 본 남자가 평한다면, “조주의 기침에는 맹목이 있어서 듣는 자는 다 죽고 만다”라고 말할 것이다.

학승이 물었다.
“대해(大海)는 많은 강물을 수용하고 있습니까?”
조주 스님이 말했다.
“대해는 모른다고 말하고 있어.”

학승이 물었다.

운상민의 서화산책 한용운 詩



사랑

봄 물보다 깊으리라 가을 산 보다 높으리라. 달보다 빛나리라 돌보다 굳으리라. 사랑을 묻는이 있거든 이대로만 말하리.



서예가 · 동미미술상 수상



김희경 동국대 선학과 외래교수

선경 해제

한국선과 선어록

아비달마 수도론 근거해 쓰인 禪經

선경(禪經)은 선수행 및 선사상을 담고 있는 일체의 경전군을 말한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선의 역사, 선사상, 선수행 내지 선문화에 대한 기록으로서 선관경전(禪觀經典)이라 부르기도 한다. 선관경전이란 계·정·혜의 무위삼학 가운데 특히 정학과 혜학을 수습하고 그 경지를 추구한 경전으로서 선정·지관·삼매 등의 사상을 그 내용으로 한다. 이런 점에서 선관경전은 단순히 선정만을 가리키는 경우도 있지만 달리 선정류, 관경류, 삼매경류를 총칭한 말이다.

선경은 주로 아비달마의 수도론을 기저로 형성되었다. 그 수도론의 범주는 범부위와 성인위에 두루 걸쳐 있다. 특히 범부위의 수도 내용인 삼현(三賢)과 사선근(四善根)의 설법이 중시된다. 따라서 관상(觀想)의 대상과 수행법의 수순과 단계에 대한 자세한 규정이 실해져 있다.

관경은 주로 대승의 불보살과 그 국토에 대한 관상을 경전의 종지로 삼은 것이 많다. 가령 여섯 관경을

선경과 관경은 지관쌍운 본질 삼아

선경과 관경은 한역만 현재 전해져

삼매경전은 갖가지 삼매 경지 설명

대승불교 경전을 주로 선정을 중심 기술

을 대표로 하는 경전군으로서 경우에 따라서는 이것을 관념경이라 부르기도 한다. 그러나 이 경우 관(觀)에 해당하는 범어의 용어가 무엇인지는 아직 분명히 밝혀져 있지 않다. 그러나 관의 개념은 <관불삼매해경>에 보이는 단좌정수(端坐正受), 심상명리(心想明利), 계념일처(繫念一處), 심불산란(心不散亂), 정관(正觀) 및 <관무량수경>에 있는 정좌서향(正坐西向), 일심계념(一心繫念), 영심견주(令心堅住), 심불산란(心不散亂) 등 관심의 방법에 대한 항목의 합의로부터 도출돼 있다.

관 관상의 대상에 대한 집중을 의미하는 계념일처는 바로 사마타이며, 이를 바탕으로 해 성립한 관상은 위빠사나에 대응하는 것으로 위의 두 경전이 목적으로 하는 관불삼매는 지관쌍운(止觀雙運)을 본질로 하고 있다. 따라서 관경에서 관의 개념은 지관의 관과 그 쌍운으로서의 삼매를 의미내용으로 하고 있다.

삼매경전은 <좌선삼매경>을 제외하고는 일반적으로 대승공관을 기저로 한 개개의 경전이 보살행의 원리가 되는 갖가지 삼매의 경지를 설명한 것이다. 그 과정에는 반드시 수행법의 규정과 형식이 자세하지는 않다. 가령 삼매의 경지에 있어서 타력불의 견불을 목적으로 하는 <반주삼매경>에 있어서도 삼매의 방법에 특별한 배려는 나타나 있지 않다.

그런데 이러한 선관경전가운데 삼매경전류의 대부분이 인도에서 성립되었다고 간주되는 것에 비하

여 선경과 관경은 그 거리가 한여 밖에 전하고 있지 않다. 특히 그 가운데서도 관경은 중국, 중앙아시아, 서북인도 등에서 성립했다는 설이 지배적이다.

기타 대승경전군 가운데 선경과 밀접한 경전이 대단히 많다. 초기대승경전 가운데 <대반야경>을 비롯한 반야경전의 계통에서는 제법개공(諸法皆空)을 설한다. 제법개공이란 모든 존재의 고정적인 실체관념과 거기에 고집하는 태도를 타파하는 것으로 반야의 불가득공을 설하여 무집착 및 부분법의 가르침은 이후에 선문과 깊은 관계를 지니게 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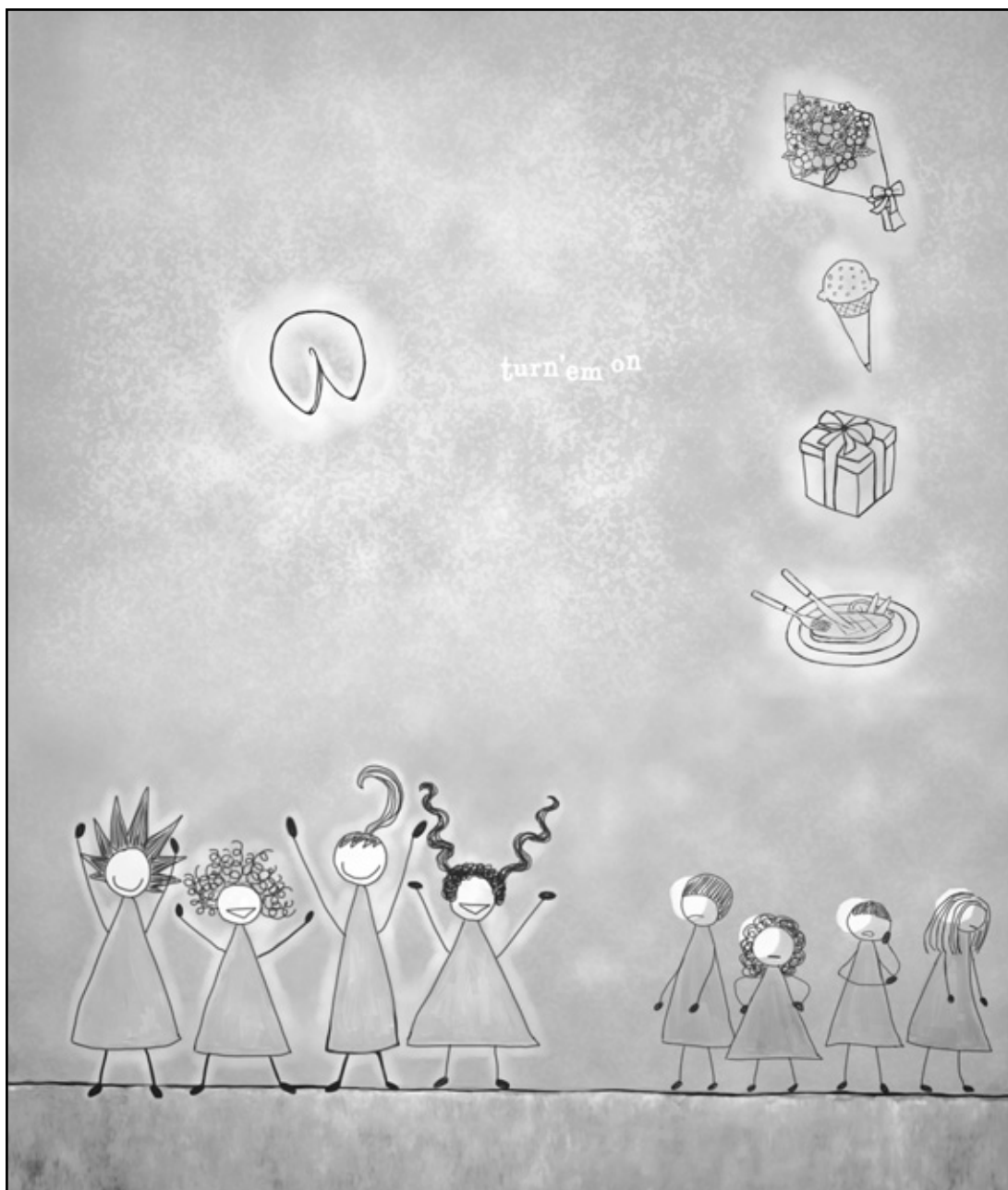
<유마경>은 소송의 자리의 독선을 타파하고 이타를 기본으로 하는 불법의 생활화를 강조한다. 그리고 묵묵히 문자언어라는 것도 없다고 하여 직심(直心)이 곧 도량임을 말하고, 불이법문(不二法門)의 실천을 보여주고 있는 점 등은 중국의 초기선종의 형성에 지대한 영향을 끼쳤다.

<화엄경>은 불타의 자재중에 기초해 광대한 묘유의 세계관을 전개해 일즉다 다즉일 주반구즉 중중무진의 연기관계를 보여준다. 이로써 버들은 푸르고 꽃은 붉다는 일상의 절대현실에 철저히, 어느 것 하나 진리로부터 벗어나 있지 않는 전일한 불법생활을 역설한 경전이다. 그리고 청정한 일심을 드높이고 전일한 생활을 강조하여 보리심과 그 실천으로 승화시킨 점은 이후 조사선법의 사상적인 뒷받침이 됐다.

중기 대승경전 가운데 <열반경>에서는 범신은 영원하여 변역되지 않고, 일체의 중생에게 성불의 선천적 근거로서 불성이 있다는 것을 보이며, 단선근(斷善根)의 일원제까지도 성불할 수 있다고 역설하는 경전이다. 그 실유불성의 가르침은 선문의 즉심시불 내지 견성성불의 사상적 근거가 됐다. 그것은 여래장을 설하고 있는 <승만경> <여래장경> <무상의경> <부처불감경>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

후기 대승경전 가운데 <능가경>은 대승의 제교설을 여러 가지로 묘사해 집록한 것이지만 아뢰야식과 여래장을 조화시키려고 시도한 경전이다. 그 불심과 여래장을 설하여 네 가지의 선을 말한다. 특히 여래선을 설명하여 여래의 불설일자(不說一字) 혹은 불설즉불설(不說即佛說)의 이치를 설명하고, 불립문자를 강조하며, 사둔사점(四頓四漸)을 설명하고 있는 점은 선과 밀접한 관련을 지니고 있는 근거이다. 중국 초기선종사에서 달마는 <능가경>을 헤가에게 주고 그것을 심오로 삼을 것을 부탁했다는 것으로부터 주목된다.

대승불교 경전은 주로 삼매를 중심으로 이뤄지는 선정에 대한 내용이 많다. 곧 <반야경> 계통의 공삼매, <법화경>의 무량아차삼매, <화엄경>의 해인삼매, <열반경>의 부동삼매, <금강삼매경>의 금강삼매 등이 있다. 이들을 중심으로 하는 대승의 선관으로는 관불삼매, 일행삼매, 제법실상관 등 대단히 성행했다.



What is Buddha Cookie!!

법法과과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1900년대 초에 처음 사용된 포춘쿠키는 쿠키 속 하나하나에 행운의 말 또는 운세가 적힌 쪽지(슬립지)가 들어있어 특별한 이벤트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기존의 포춘쿠키를 현대식과 불교식으로 재해석하여 생활법구경, 각종 행사 용도에 맞는 문구를 넣어 불교형으로 탄생 시킨 것이 ‘법과(法果)’입니다.

● 법과 이벤트 (Event)

‘법과(法果)’ 속 의 짧은 법구경 말씀은 세대를 가리지 않고 강렬하고 진한 감동을 선물 합니다.
‘법과(法果)’ 속의 메시지는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는 놀라운 힘이 있음을 연구를 통해 증명 되었습니다. 이 ‘법과(法果)’를 활용하여 시작되는 사찰 홍보 · 이벤트는 다른 어떤 유형들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시킬 수 있는 드라마틱한 효과를 약속합니다.

● 법과 활용 (Use)

이미 많은 사찰과 불교 단체, 기업 등 2,000여개의 곳이 포춘쿠키를 활용한 봉축행사, 템플스테이션, 어린이법회, 광고, 돌잔치, 결혼식, 전시회, 경품당첨 이벤트 등을 통해 효과를 경험했고, 미디어로서의 역할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또한, 식약청으로부터 검사, 통과 된 안심 먹거리 입니다.



※ 500개 이상 부터 주문 가능하며 원하는 문구를 새겨 드립니다.



현대불교 현불샵

서울시 종로구 수송동 46-21 수송빌딩 2층
TEL 02)2004-8216

계좌번호 : 농협 053-01-269062 (예금주: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